

편집자와 요리사

俞大琪 기획출판 거름 대표

출판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할 때, 그 성격은 개별 출판사의 편집업무에서 드러난다. 영업은 기본적으로 유통부문에 속하는 것으로서, 출판사가 이 업무까지 내부에 갖고 있다는 사실이 출판업의 상대적 낙후성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편집에서 애로에 부딪치는 것은 곧 공장에 문제가 생김을 뜻한다. 이를 요리에 비유해 보자. 어떤 반찬거리를 장만하는가는 기획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므로, 요리사인 편집자가 아무리 많은 양념을 갖추고 솜씨가 뛰어나도, 시장 봐 온 것이 썩었거나 시원찮으면 헛고생이다.

출판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썩거나 한물 간 생선을 파는 저자와 역자, 그리고 이를 반찬거리로 사오는 출판사 발행인이나 기획담당자다.

저작물의 생산을 맡는 저자나 역자는 출판사의 기획의도에 형편없이 뒤지는 원고를 들고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글재주가 모자라는 것은 교열로 개선할 수가 있지만, 여기저기서 짜집기한 원고나 오역투성이의 번역물은 요리사를 막막하게 만든다. 그나마 기일이나 지키면 고맙기나 하지. 시의성을 요하는 원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철 지난 뒤에야 갖고 오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톨스토이 같은 악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90종의 책을 늘어놓고 낫을 붙인다. 생긴 지 10년도 안된 출판사의 책임자로서, 연판 지형을 뜨기에도 늦은 활판 시대의 책들, 개정하자니 제작비의 이자도 몰려다 주지 못할 이 소중한 땀의 결정체들을 두고 상념에 잠긴다. 문화계에

중사한다는 자부심에서 오는 옹고집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따라야 할 경제적 타산 사이에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 옳은가.

결국 골라서라도 개정판·개역판들을 내기로 했다. 이것도 일종의 투자이리라. 보다 양식있는 역자나 저자를 끌어모으고 현재 역자나 필자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리라 싶다.

저작물의 복제자인 출판사가 그 생산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던 시대는 가야 된다. 생산자들은 개인적 생활이야 어떻든간에, 적어도 저술과 번역을 맡았을 때는, 자신의 생산물이 전국 독자들의 문화적 식탁에 상품으로서 오를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100년 후에도 각급 도서관에 장서로 비치되어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출판사는 이를 주지시켜 문화적·지적 창조 행위의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편집자들도 마찬가지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밥값이 아까울 때는 일차적으로 식당 주인과 주방을 나무람을 명심해야 된다.

출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듯한데, 우리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출판저널

통권 제64호/1990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堯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鄭蕙王 朴南貞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李羲天 崔炳天
 金允淳 金敏姬

등록 1987년 6월 9일—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식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 成完慶 宋相庸 慎鏞廈 安秉永
- 安雅滄 吳光洙 劉戰天 陸明心
-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景薰
-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 李勝羽 李元毅 李重漢 李姬載
-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鎮弘
-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가나다 순)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임금이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강명있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7월 1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66호(7월 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금성고과서(주)에서 펴낸 「뉴에이스英語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1

許蘭雪軒과 더불어 조선시대 여류문학의 쌍벽으로 꼽히는 黃眞伊의 시조 및 한시 작품에는 그와 교분을 나누었던 情人들과 관계깊은 것이

많습니다. 아래에 譯文으로 소개하는 한시는 황진이가 사귀었던 남자와의 이별을 읊은 것입니다.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달빛 아래 오동잎이 지는데 / 서리를 맞고 들국화가 피었다... 흐르는 물은 거문고소리에 싸늘하고 / 매화는 피리소리에 젖어 향기롭네 / 내일 서로 이별한 뒤에 / 정은 저 강물처럼 끝이 없으리.”

- ① 徐花潭
- ② 碧溪水
- ③ 蘇世讓
- ④ 知足禪師

문제2

조선 중기 성천의 名妓 芙蓉이 남긴 「부용집」 소재 3백여수의 한시는 규수문학의 정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시는 부용이 어떤 ‘꽃’에 자신의 심정을 의탁하여 인간세상의 이별의 슬픔을 읊은 작품입니다. 그 꽃은 무슨 꽃이겠습니까?

“고운 얼굴 흰 살결이 점점 쇠하는구나 / 동풍에 열매를 맺는 나무도 푸른 가지가 돌아났다 / 봄소식은 끊이지 않고 해마다 돌아오니 / 이별을 한다는 인생과 같지 않

네.”

- ① 매화
- ② 배꽃
- ③ 동백
- ④ 두견화

문제3

다음은 조선조 9대왕이었던 成宗의 시조작품으로 임금의 신하 사랑하는 마음이 잘 표현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합천군수로 있던 이 사람이 老母의 봉양을 위해 관직에서 물러나려 하자 이를 만류하여 성종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 ① 李賢輔
- ② 俞好仁
- ③ 申光漢
- ④ 楊士彦

제62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2호(5월 2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36통, 이중 정답자는 1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

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문제1

- ② 黃眞伊

문제2

- ① 錦江

문제3

- ① 잔느 뒤발

당첨자

김세철(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8-1 경보빌딩)

조차남(경남 마산시 양덕동 155-6)

김희선(서울시 중구 신당 2동 379-10)

송영순(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9-18)

김수정(대구시 남구 봉덕 3동 561-10)